

■특별기고 - 權仁浩(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2)

서양 고대 로마에서도 '하늘(天)의 소리(Vox Dei)'란 바로 '민중의 소리(Vox Populi)'이란 뜻이 있고, 민심은 천심이고 사람이 곧 하늘인 것(人乃天)이다. 그래서 아마도 공자가 '하늘이 나게 덕을 베풀어 준다(天生德於予)' 했는가 보며, 맹자도 인간의 천성(天性)이 착하다고 했으니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고 본다.



'친일파'나 '친일매국노', '밀정' 등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진실이나, 우리 나라가 일본(倭)을 이웃나라로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어도 18세기 말까지는 선진국으로서 문물을 전수해 주고 교린 우호적으로 지내고자 하였으나, 왜구와 일본의 침략행위(왜란)는 역사 왜곡날조와 망언, 독도분쟁, 미국·영국을 등에 업고 우리 대한민국을 멸시하고 같은 언행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880년 조선의 수신사로 김홍집(金弘集, 1842-1896, 본관은 慶州) 일본에 갔을 때, 당시 청나라 초대 주일(本)공사인 황준헌(黃遵憲, 1848-1905, 광둥 嘉應人)이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이 선택해야 할 외교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사의조선책략(擬朝鮮策略)』이란 책을 주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고 '중국(청나라)과 친화(親和國), 일본과 조약을 맺고(結日本), 미국과 연합(聯美國)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때를 전후하여 조일수호조약(1876), 조미통상조약(1882), 조영통상조약(1883) 후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이 줄을 이었다.

바로 이 때 혁명이란 민심의 향방에 따른 권력의 교체이므로 정권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심이나 민의의 결집으로 오늘날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는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거혁명'이란 용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쿠데타는 민심과 관련이 없는, 힘(武力)을 가진 자 권력의지(욕망)에 의한 국가나 권력을 탈취(도둑질)한 것이므로 정권의 정당성이나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역사가 반란의 수괴이다.

그러므로 옛날 왕조시대엔 이들을 능지처참이나 정형효수(正刑梟首; 목을 잘라 장대 등에 높이 매달는 형벌) 등에 연좌제로 삼족(三族: 親族·外族·妻族)이나 구족을 멸하였고, 현재도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도 사형 도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유교 정치의 근본사상은 민본(民本)이고 그 종지(宗旨)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곧 '스스로 참사람다운 인간으로 수양된 이후에 남을 다스리거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남녀노소 상하계급이 더불어 잘 살도록 하는 대동(大同)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다.

우리가 우러러 보거나 유학의 공부는 '성현(聖賢)이 되기 위한 것'은 바로 백성(민중)과 연관된 구체적 정치현실을 개선하고 이상사회를 실현한 사람 또는 실현하려고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자신 홀로만 완성된 인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민족의 광복(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애국지사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최근 일본의 아베(安倍眞三) 정권이 한국에 대해 전자제품소재 수출규제에 대하여 예전과 다른 의연한 자주적인 외교와 대응전략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상품불매와 일본 여행 안가기 등의 거국적인 운동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종료 선언으로 일본이 무척 당황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지한당)이나 이른바 '신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우리 국민의 극히 일부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규모를 일제 식민지 시대나 5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협정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국가부채가 1경 4천조원(2018년, 253%) 등으로 실물경제와 사회불안, 국가안보 등에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제 대한 야당(지한당)이나 이른바 '신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우리 국민의 극히 일부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규모를 일제 식민지 시대나 5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협정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국가부채가 1경 4천조원(2018년, 253%) 등으로 실물경제와 사회불안, 국가안보 등에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이제 대한 야당(지한당)이나 이른바 '신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우리 국민의 극히 일부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규모를 일제 식민지 시대나 5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협정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국가부채가 1경 4천조원(2018년, 253%) 등으로 실물경제와 사회불안, 국가안보 등에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이제 대한 야당(지한당)이나 이른바 '신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우리 국민의 극히 일부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규모를 일제 식민지 시대나 5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협정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국가부채가 1경 4천조원(2018년, 253%) 등으로 실물경제와 사회불안, 국가안보 등에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이제 대한 야당(지한당)이나 이른바 '신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우리 국민의 극히 일부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규모를 일제 식민지 시대나 5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협정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국가부채가 1경 4천조원(2018년, 253%) 등으로 실물경제와 사회불안, 국가안보 등에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이제 대한 야당(지한당)이나 이른바 '신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우리 국민의 극히 일부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규모를 일제 식민지 시대나 5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협정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국가부채가 1경 4천조원(2018년, 253%) 등으로 실물경제와 사회불안, 국가안보 등에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이제 대한 야당(지한당)이나 이른바 '신친일파' 혹은 '토착왜구'라는 우리 국민의 극히 일부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규모를 일제 식민지 시대나 5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협정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국가부채가 1경 4천조원(2018년, 253%) 등으로 실물경제와 사회불안, 국가안보 등에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닭실마을 충재 권벌(沖齋 權撥) 선생 19대 종손 권용철(權容轍, 북야공파 38세)

광복절 아침, 경북 봉화 춘양, '봉화지역사박물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權大植)이 '역지춘양 주민문화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봉화 지역사 전시회, '머하고 살았니?' 사진과 기록으로 보는 봉화 6070'을 관람하고 권이사장과의 대화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사정상 만나지 못하였다.

위낙 유명하니 각설하고, 청암정(靑巖亭), 그 고고한 장소에 앉아 소슬한 바람을 맞으며 종손과 동행한 춘양 석현리에 거주하는 장창호(張昌鎬, 1959- , 숭부영농조합이사장) 선생과 함께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종손으로서의 어려움과 박물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 몇 마디를 옮기자면 이렇다.

곧 인근 충재 권벌선생(1478-1548)의 닭실 마을을 방문하여, 그 19대 종손 권용철(1974- , 충재박물관 관장, 봉화문화원사무국장) 선생을 만나기 위해 '충재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권용철 관장은 큰 키에 무인의 기상이 느껴지는 비교적 젊은 분이고, 선친 권종목(權宗睦, 1943-2015)선생과 이 박물관을 운영하였다 한다. 지금은 부인 권재정 여사(1976- , 예천권씨 권문해 중가)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막상 선친이 안계시니 그 그림자가 컸던 걸 절감 합니다. 제가 나 이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하기도 하고요.' '충재 박물관은 정말 어렵지요. 군립박물관 이라고는 하지만 전기세 정도와 해설사 지원 정도로는 운영이 참.' '아까 보신 수장고 자 전시관과 붙어 있고, 전시관의 전시품도 보존을 위해 모조품으로 대체하니 그것도 문제이고요.' '권씨라는 특정 성씨를 위한 지원은 어렵다는 관청의 의견도 있고요.' '이 닭실은 전국적 명당이고 보물급 유물은 물론, 그 정신사적 가치 는 매우 큼니다.' '이걸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종친 어른들도 이제 하나 둘 떠나시고 누가 이 걸 지켜 관리할까 걱정한 심정입니다.' '한 때 이 곳에 하루에도 수



청암정, 종손부부, 충재박물관, 금계포란형, 권용철 장청호님(왼쪽 위부터)

추담의 권진사대 종손 권탄웅(權坦雄, 1942-)선생도 충재의 후손이며 추담의 권진사대는 봉화 독립운동의 산실이기도 하다. 더구나 권종목, 권탄웅 선생은 서울 성동구 공립 S고교동기 동창이고 본 기자의 고교 선배이니 이 또한 인연 소생이 아닐 수 없다.

충재 권벌 선생과 닭실 마을은

백명이 온 적이 있지만 이 것도 문제인 것이 여기 청암정 바닥 보시 듯이 낙서와 무너져 내리는 바닥 등 엄청난 손상이 있습니다.' '저도 종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훌륭한 유산을 국가와 권씨종친회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대하여 '士禍黨派 박물관'과 같은 특화된 박물관이 생겼으면 한다. 그리고 마침 지난 C제약에서의 인연을 가진 권석형 회장(權奭衡, 1955- , 노비렉스 회장)이 생각나서 물어보니 이 마을 출신이라고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이런 그의 말을 들으니 본 기자는 가슴이 서늘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삼태사 기념사업' 등의 문제로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 걷길 지켜 관리할까 걱정한 심정입니다.' '한 때 이 곳에 하루에도 수

권관장이 초계국수와 얼마전 끝난 봉화은어축제에도 유명한 은어 튀김을 가져와서 접빈객의 전통을 지키는 종손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사를 드리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권용철 기자)

삼태사의 후에 안동 장문(張門)의 걸출한 인물

아! 장준하(張俊河) 44주기 기념식 참관기



장준하 새긴돌, 통일의 길목에서 수난 받다가 동해시 어느 풀밭에...

고려개국을 가능케 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합의 선례를 남긴 공적은 오롯이 권문, 김문, 장문 삼태사의 안동 병산전투의 승리에 기인한다.

서 열렸다. 또 몇 년 전 장선생의 장남 장호 권 선생을 촛불광장에서 만나 안동 장씨임을 확인하고 권오운 전 총장과 같이 장씨종친회 장병진 선생과 만난 일, 또 통일의 길목, 대화동 풀밭에 있던 장준하를 기리는 '장준하 새긴돌'의 운명을 추적하여 당시 실무자 이영찬(1933-전 고양

여기서 그 한 축인 장태사 장정필(張吉)의 후손 중, 현대에 가장 빛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장준하 선생의 44주기 추모식이 파주시 성동리 소재 '장준하추모공원'에

향교전교, 고양시성씨연합회장) 선생에게 문의 '동해'시에 있음을 알아내고 장호권 선생에게 말하던 등이 새삼스럽다. 그가 1973-4년경 작성하여 이제 발견된 '우리의 견해'라는 짧은 글은 그의 탁월한 예지력을 증언하고 있다. "내 영혼 노을 처럼 번지리, 겨레의 가슴마다 핏빛으로 내 영혼 영원히 헤엄치리 조국의 역사 속에 핏빛으로."

이즈음 장준하 선생이 생각나는 것은 그가 항일투쟁의 선봉장이었고, 민주화의 화신으로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을 반대했으며, 4.19 이후 국토건설단장으로 조국근대화의 실천자였기 때문이라. 특히 그가 창간한 <사상계(思想界)>가 걸어온 길은 바로 민족 지성의 상

장준하(張俊河) 44주기 기념식 참관기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앞은 정일권, 이 말긋은 사진 한장의 의미 그 것같은 윤영, 명동중학교 동창회

이것은 그의 탁월한 예지력을 증언하고 있다. "내 영혼 노을 처럼 번지리, 겨레의 가슴마다 핏빛으로 내 영혼 영원히 헤엄치리 조국의 역사 속에 핏빛으로."

장준하(張俊河) 44주기 기념식 참관기

서울마포종친회 하기 야유회

마포종친회 하기 야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야유회는 유서 깊은 문화의 현장을 방문하여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 시 : 2019년 9월 22일(일) 오전 8시
◆ 출 발 지 : 공덕동 한화아파트 후문(회장님 덕엽) ◆ 승차버스 : 하나관광
◆ 행 선 지 : 용인와우정사, 이천도자기촌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9년 9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299차)

- ◆ 일 시 : 2019년 9월 15일 오전 10시(매월 3째 일요일)
◆ 등 산 지 : 북한산성
◆ 집결장소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준 비 물 : 산행필수장비 등 개인별 준비
회 장(권종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순휘): 010-3797-1874

2019년 9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종 훈

2019년도 종보대금 지로용지 발송 안내

안동권씨 대총회에서는 2019년도 종보대금 지로용지를 9월호 종보와 함께 구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종보대금 연락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종보 대금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대총회